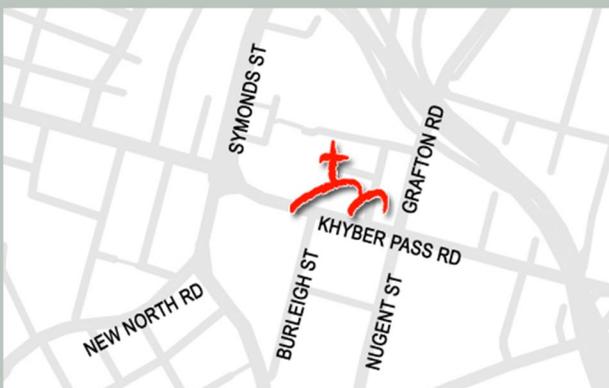


- 우리 갈보리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담임 목사와 만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 남녀 선교회 총회가 12월 8일 주일에 있습니다. (12월 월례회는 1일 주일에 그대로 합니다).
 - 오는 27일 수요일 예배는 통가 공동체 주관입니다. 다함께 연합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 다음 주일은 권사회 기도 주일입니다. 교회와 성도들 위한 거룩한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 청년부 주관으로 다니엘 기도회가 아동부실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매일 저녁 7시, 수요일은 오후 5시). 새벽 기도회는 다니엘 기도회로 대신합니다. 사정상 가정에서 동참하실 성도는 유튜브에서 '2019년 다니엘 기도회'를 치시면 됩니다.
 - 청소년부와 청년부 연합 수련회가 오는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있습니다.
 - 교사 교육이 11월 3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교회에서 있습니다.
 - 2019년 성탄 축하 예배와 축하 행사 시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25일).
성탄 감사 예배/ 오후 5-6시 식사 교제/ 오후 6-7시 성탄 축하 잔치/ 오후 7시-8시
(성탄 감사 헌금은 전액 구제헌금으로 사용합니다).
 - 읽지 않는 어린이 동화책(영어)을 수집합니다(바누아투 포포아 교회 어린이 도서관 마련을 위한 것입니다).
 - 2남선교회에서 주관하는 2 Mart를 한 번 더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까지만 개장을 하고 닫습니다.
 - 오클랜드 오라토리오 코랄 주최 제5회 "헨델의 메시아" 공연이 있습니다.
장소: Holy Trinity Cathedral, Parnell 일시: 11월 30일 (토) 7시 30분 티켓: \$30 문의: 정혜숙 권사

[11월 교회 사역 일지]

27일(수): 공동체 주관 예배 (통가)

INFO



[예배시간안내]

주일 1부예배	주일	11:20 am
주일 2부예배	주일	1:00 pm
청년예배	주일	3:15 pm
수요일예배	수	7:30 pm
새벽기도	금	5:30 am
유아부	주일	1:00 pm
청소년부	주일	1:00 pm

[섬기는사람들]

담임목사	이태한
부목사	이성철
부목사	이성훈

www.calvary.org.nz
www.youtube.com/calvaryorgnz
www.koreaniptv.co.nz

70 Khyber Pass Rd, Grafton, Auckland
(Ph) 09-369-5077 (Mb) 021-968-388
LTH-07@calvary.org.nz



해/외/한/인/장/로/교/회
갈보리교회
교회창립 1999 / 07 / 18

2019/11/17
21권 46호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후서 3:14

주일에배 1부 오전 11시20분 2부 오후 1시 인도: 이태한 목사

찬양	-----	주일 찬양단
예배로부름	----- 이사야 55:1-2 -----	인도자
■ 찬송	----- 10장 -----	다같이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같이
찬송	----- 270장 -----	다같이
대표기도	-----	손조훈 집사
성경봉독	----- 창세기 1:26-31 -----	인도자
찬양대찬양	----- 주가세상을다스리니 -----	나무십자가찬양단
설교	----- 형상따라모양대로 -----	이태한 목사
찬송	----- 435장 -----	다같이
헌금기도	-----	인도자
교회소식	-----	인도자
■ 응답송	----- 445장 -----	다같이
■ 축도	-----	이태한 목사

■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헌금은 들어오실 때 봉헌함에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예배 오후 7시30분 **청년예배** 오후 3시 15분

기도	박제용 장로	금주기도	이예찬 형제
성경봉독	마가복음 8:36-38	다음주일	최호림 자매
설교	[제 목숨을 잃으면] 이태한 목사	- 매주 금요일 오후 6시에 청년부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찬송	488장		
주기도	다같이		

[11/12월 기도 순서]
11월 24일 (주일) / 현석호 장로
11월 27일 (수) / 통가 공동체
12월 1일 (주일) / 정관영 장로
12월 4일 (수) / 문일숙 집사

[11월 예배 봉사자]
예배 안내 / 손조훈, 이애란
새신자 안내 / 차영철, 심경순
주차 안내 / 민광호
주방 봉사 / 박제란, 김명옥, 박영선 A

이번 주는 중앙아시아 k국 강 나하르 선교사 소식입니다.

평안하신지요?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시드니에 온 지 한 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 달을 보내셨는지요? 저는 조용하게 쉬면서 책도 읽고, 긴 여행과 반가운 만남, 예상치 못한 만남이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온 손님 예전에 뉴질랜드에 있을 때 한 교회에서 청년부 제자 양육을 했었습니다. 그때 양육했던 대학생들이 지금은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들 중 한 자매가 학교 방학을 이용해 (초등학교 선생님) 시드니에 왔습니다. 4박 5일 동안 구글 지도를 보면서, 해매면서 도시의 여기저기를 다녔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서 찾아와주어 정말 고마웠고 여러 이야기 나눌 수 있어 기뻐했습니다.

긴 여행 2주 전에 스페인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비행기를 세 번갈아 탔는데 거의 만석이었고 맨 뒷줄 창문가에 15시간 앉아있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세미나는 각 지역에서 온 선교사들과 함께 다양한 문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섬길 것인지, 자신의 연약함과 팀 사역, 갈등의 해결 등 구체적인 적용과 WE*의 "4 기둥"(믿음, 거룩, 희생, 교제)과 근본적인 가치들을 점검하면서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세미나를 마치고 곧장 2박 3일간 비행기를 타고 돌아왔는데 일주일만 지나고 여독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WEC 시드니 기도 모임 스페인에서 만난 호주 선교사를 통해 시드니 기도 모임이 언제인지 물어보고 참석했습니다. 9년 전 3개월간 시드니에 무슬림들이 모여 사는 동네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때 훈련을 담당했던 선교사님들은 다른 사역이나 은퇴 등으로 시드니에 안 계셨는데 마침 방문한 그날 두 분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또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제게 필요한 정보를 얻었고, 바이블 컬리지에 가서 선교지를 소개해 주길 제안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세미나를 다녀와서 관심이 생겨 찾아 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주리고 목마르면서 계속 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에 경험하고 싶습니다.

강 나하르 드림

기도 제목

- 1) 여행 후 많이 피곤하고 온몸이 빠근한데 운동을 꾸준히 하고 노력해서 건강하도록.
- 2) 9월 멜번으로 가는데 그곳에서의 생활을 계획한 대로 잘해나가고 범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도록

왜 내 기도는?

예수님은 분명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요 14:14) 하셨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복권에 당첨되지 않는 것은 왜일까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말씀은 주문이나 염불처럼 내 소원 리스트 뒤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는 문장을 붙이라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뜻은 '예수님 표'에 맞게 '예수님의 뜻에 부합하게'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뜻에 맞게 믿지 않는 가족을 구원해 달라는 기도를 몇 년이나 드렸는데도 믿지 않고 돌아가신 가족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요? 의심하지 않고 기도드렸는데도 (약 1:6) 결과가 그렇다면 왜일까요?

겨자씨만 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 하셨는데(마 17:20) 내 인생에 아직도 끄떡없이 자리 잡고 있는 바위 덩어리들을 볼 때마다 적어도 겨자씨보다는 큰 믿음으로 큰소리로 밤새 구했는데 도대체 왜? 자문하게 됩니다.

기도는 무조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른 후에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백 번 천 번 간청하며 믿어 의심치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먼저 내게 필요한 것과 내가 간구하는 것 다 주시기 원하는 분과 나와의 관계가 있어야 함을 알았습니다.

아빠와 선물 사러 길을 나선 아이가 길에서 아빠를 잃어버리자 울며 선물 못 얻을 것만을 염려하며 큰소리로 선물을 외치며 부르짖는 것과 같은 것이 나의 기도는 아닌지 돌아봅니다. 먼저 손을 놓진 아빠를 찾아야 합니다. 아빠 없이는 선물은커녕 아빠가 주시는 안전한 귀가도 평온한 삶도 없습니다. 먼저 나와 하나님과 관계를 구하는 기도로 그 어떤 절실한 무엇보다 제일 먼저 아빠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부어 주시고 지극히 선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로 정말 구할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나의 모든 기도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받는 것을 깨닫게 하시며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아빠를 찾으면 원하던 선물은 물론 아들로서의 특권과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배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마 6:9).

김자경 권사

1.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함을 가리지 않는 교회로 세워지도록.
2. 세상을 따르지 않고 더 거룩하고 더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3. 기도의 능력이 가정과 삶의 현장에 나타나고, 회복의 역사가 몸과 마음에 나타나도록.

창세기 1:27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